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음악 열기... 문화전당이 들썩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신나는 월드뮤직 축제 현장으로 변신한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4일 "제5회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을 오는 8월29~30일 이틀간 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회째를 맞이하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대표 축제다. 2015년 개관 예정인 문화전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가 열리는 건 햇수로 2005년 작곡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문화전당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구(중앙생 활체육공원)를 시작으로 광산구(쌍암공원), 북구(전남대학교), 남구(빛고을 시민문화회관) 등 광주지역을 순회하며 열렸으나, 사실상 문화전당 본무대로 자리를 옮겨 열리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의 에너지가 문화전당에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드뮤직페스티벌 행사무대는 현재 문화전당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이 확보된 문화창조원 옥상 잔디광장 등 일부 야외 공간에 마련된다. 국내 최고 축제 기획자로 평가 받는 인재진 감독이 올해도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의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국내·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 참여
29~30일 이틀간 열려 문화전당 첫 공식행사



마이라 안드라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이끈 재즈 공연 전문가다.

행사는 '메인 스테이지', '서브 스테이지', '오픈 스테이지' 3개의 무대로 구성되며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월드뮤직의 스펙트럼을 펼친다.

메인 스테이지의 주역은 '월드뮤직의 미래'라 불리는 쿠바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마이라 안드라데(Mayra Andrade), 콩고의 리듬으로 세계를 춤추게 하는 주피터 앤 오퀘스 인터내셔널(Jupiter & Okwess International) 등 월드뮤직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타악주자 장재호, 가수 이상은도 출연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지역 음악인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선발한 아마추어 연주자들도 무대에 오른다. 한편, 자원봉사자 그룹인 '광월반디'도 월드뮤직 페스티벌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팀의 명칭은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광월)의 반딧불이(반디)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4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무료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gjwmf.com)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주피터 앤 오퀘스 인터내셔널



킹스턴 루디스카

문화전당 예술극장 11월 '부케티노' 공연

전당 개관 전 공개 프로그램

11월 15~22일 16차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예술극장이 오는 11월 이탈리아 아티스트 그룹 '소치에타스 라파엘로 산치오'(Societas Raffaello Sanzio)가 연출하는 공연물 '부케티노'(Bucchettino)를 무대에 올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부케티노를 오는 11월 15일~22일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공연은 오는 2015년 문화전당 개관에 앞서 공개되는 개관 전 프로그램이다.

'부케티노'는 동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작품으로, 청각·촉각·시각 등 공감각적 요소를 극대화한 관객참여형 연극이다. 기존 공연의 어린이 관객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재현하는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세워진 오두막집 침대(세트)에 직접 누워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오두막집 밖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현장음을 통해 스스로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이 작품은 '아동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표 동화작가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의 동명의 작품이 원작이다.

작품을 선보일 '소치에타스 라파엘로 산치오'는 로메오 카스텔루치와 키아라 귀디가 공동으로 창단한



관객참여형 연극 '부케티노' 한 장면.

극단으로 연극, 음악, 회화, 오페라, 이미지, 기계장치 등 다양한 범주의 예술형식을 통합하여 독보적인 독창성을 보유한 작품을 다수 제작해 왔다.

키아라 귀디(Chiara Guidi)는 이탈리아 공연에 출연할 스토리텔러 선발 오디션을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토리텔러는 키아라 귀디와 함께 리허설에 참가한다.

'소치에타스 라파엘로 산치오'는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공연예술상 '우부(UBU)'를 3회 수상했으며, 지난 2003년에는 작품 '창세기'로 파리비평가협회 대상을 차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원 교수 정년 기념 사제전 '여정·사랑·동행'



'멈추려고 하던 욕심'



'표리의 능엄'

25~30일 조선대 미술관

조선대 출신 작가·교수 등 76명 참여

조선대 미술대학 김대원 교수가 37년간 정들었던 대학 강단을 떠난다.

자립 김대원 정년기념 사제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연수)는 25~30일 조선대 미술관에서 김대원 교수의 정년을 기념해 '여정·사랑·동행'을 주제로 사제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대원 교수를 비롯해 강민우·강요상·문인상·박문수·배형민·송근미·양계남·임근재·주대희·진원장 등 조선대 출신 작가 및 교수 등 모두 76명이 참여한다.

목포 출신인 김 교수는 조선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9년

조교와 전임강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돼 조선대에 37년을 몸담았다. 조선대 미술대학 학과장과 부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단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도 독자적인 화풍을 추구하기 위해 애써온 그는 수묵이 갖는 재료적 한계와 질감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했다. 그는 전통수묵에서부터 현대 색채회화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폭이 넓은 작가다.

특히 2000년대 초에 선보인 '옛날 옛적에' 시리즈는 설화의 주제를 색채로 덧입혀 탄생시킨 독자적인 현대 수묵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의재 허백련상 분상, 미술세계 올해의 작가상, 전남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문의 062-230-7832.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본 마음 가득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TRIAISHUMA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마감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